

《洪武正韻譯訓》의 俗音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愼 鏞 權\*\*

<目次>

I. 머리말	5. 鼻音 韻尾의 변화
II. 俗音이 注音된 부류 목록	6. 韻母의 간략화
III. 俗音이 注音된 부류의 분석	7. 기타 韻母 표기의 변화
1. 疑母의 소실	8. 支·紙·寘 三韻의 韻母 변화와 終聲 표기
2. 全濁音과 관련된 변화	9. 기타 俗音 표기
3. 唇音字 韻母 변화	IV. 俗音 注音의 목적
4. 入聲 韻尾 및 韻母 표기의 변화	V. 맺음말

I. 머리말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 창제자인 세종은 漢語音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훈민정음 창제 후 처음으로 착수한 사업 중의 하나가 中國 韻書인 《韻會》에 대한 번역이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완성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中國 韻書인 《洪武正韻》을 대상으로 譯訓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으로 注音한 최초의 韓國 韻書인 《洪武正韻譯訓》(1455)(이하 《譯訓》)이다. 이 책에서는 《洪武正韻》의 反切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4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을 분석하여 正音으로 제시하였고 그 밑에 15세기 당시의 北方漢語음을 俗音으로 달아 놓았는데, 이는 모두 훈민정음이라는 표음문자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漢語의 소리를 적은 것이었다.<sup>1)</sup> 이 俗音 표기는 일차적으로는 漢語音韻史 자료로서 큰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漢學者들이 훈민정음으로 漢語음을 표기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譯訓》의 漢語음 표기는 이후에 간행된 한국의 韻書에 제시된 漢語 규범음 표기의 기초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譯訓》에 나타난 漢語음 표기 중 俗音を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즉 《譯訓》에 나타난 俗音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俗音 표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漢語音韻史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譯訓》에서 俗音이 注音된 부류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1) 《洪武正韻》이 어떤 성격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줄고 2002: 69-71). 趙蔭棠(1936)(《中原音韻》研究)과 王力(1956)(《漢語音韻學》) 등에서는 《洪武正韻》 편찬자의 대부분이 南方人임을 고려할 때, 음운체계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王力(1956)에서는 《洪武正韻》이 《中原音韻》과는 달리 당시의 中原音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고 여러 방언이 혼합된 音系를 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후에 이 견해는 학계에 큰 영향을 주어 《洪武正韻》의 자료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洪武正韻》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후 변화를 보였다. 葉寶奎(1994)(《洪武正韻》與明初官話音系)에서는 이 책이 明初 官話音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며 漢語 표준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忌浮(1998)(《洪武正韻》一二三)에서는 《洪武正韻》이 《增修互注禮部韻略》과의 차이를 통하여 14세기 中原雅音의 일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단순한 音系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洪武正韻》의 序에서 언급한 “壹以中原雅音爲定”이라는 기록과 편찬 당시의 상황을 통해 볼 때 이 책은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특정한 방언이 아닌 14세기 中原雅音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음운체계에서 中原雅音이 아닌 요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明初의 首都인 南京에서 통용되던 표준음(讀書音)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譯訓》이 반영하는 北方漢語음이란 《譯訓》 편찬 당시 中國의 首都였던 北京을 중심으로 하는 北方 지역과 北京 遷都 이전 중국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中原 지역에서 널리 통용되던 漢語음을 포괄하여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譯訓》 俗音を 注音한 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하며, 俗音 注音의 목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國語學史의 중요 주제인 훈민정음의 漢語音 표기방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15세기 중반의 北方漢語音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俗音이 注音된 부류 목록

본 장에서는 《譯訓》에서 俗音이 注音된 부류를 각 권별로 모두 제시하고자 한다.<sup>2)</sup> <표 1>에서는 俗音이 注音된 부류를 “卷數(聲調), 해당 韻, 字母(소속 字數), 正音 표기, 俗音 표기” 순으로 제시한다.<sup>3)</sup>

### <표 1> 《譯訓》에서 俗音이 注音된 부류

#### [卷第三](平聲)

##### ■ 八 眞韻

① 微母(7字)<sup>4)</sup>                      正音 ㄹ                      俗音 ㄹ

- 2) 이 글에서 이용한 《譯訓》은 1973년 高麗大學校 出版部에서 간행한 影印本이다. 이 影印本은 卷第一과 卷第二가 缺本으로 復原篇을 뒤에 붙여 놓았다. <표 1>에서 卷第一과 卷第二에 나타난 俗音 부류는 마지막에 제시한다.
- 3) 《譯訓》의 正音과 俗音 표기에 사용된 한글 子音의 중세한국어 추정음은 다음과 같다(허용 1985: 390). ㄱ=[k], ㅋ=[kʰ], ㆁ=[ŋ], ㄷ=[t], ㅌ=[tʰ], ㄷᆞ=[tʰ], ㄴ=[n], ㅍ=[p], ㅍᆞ=[pʰ], ㅃ=[pʰ], ㅁ=[m], ㅂ=[β], (ㅂᆞ=[β], ㅄ=[w]), ㅅ=[s], ㅆ=[sʰ], ㅈ=[s], ㅉ=[sʰ], ㅇ=[ʔ], ㅎ=[h], ㅎᆞ=[ç], ㅇ=소리 없음, ㄹ=[l], ㄹᆞ=[z]. 俗音 표기에 사용된 한글 母音의 중세한국어 추정음은 다음과 같다(허용 1985: 390). ㅏ=[a], ㅑ=[ə], ㅓ=[o], ㅕ=[u], ㅡ=[ɪ], ㅣ=[i], ㅗ=[ja], ㅛ=[jə], ㅜ=[jo], ㅠ=[ju], ㅛᆞ=[ǝa], ㅜᆞ=[ǝə], ㅡᆞ=[ij], ㅓᆞ=[oj], ㅕᆞ=[aj], ㅗᆞ=[uj], ㅛᆞᆞ=[əj], ㅜᆞᆞ=[jaj], ㅠᆞᆞ=[jəj], ㅛᆞᆞᆞ=[joj], ㅜᆞᆞᆞ=[juj], ㅛᆞᆞᆞᆞ=[ǝaj], ㅜᆞᆞᆞᆞᆞ=[ǝəj].
- 4) 《譯訓》에서 각 字母(추정 漢語音)에 대응하는 한글 표기는 다음과 같으며, 추정 漢語音은 姜信沆(1973: 163)에 근거하였다. 見(k)=ㄱ, 溪(kʰ)=ㅋ, 群(g)=ㆁ, 疑(ŋ)=ㅇ, 端(t)=ㄷ, 透(tʰ)=ㅌ, 定(d)=ㄷᆞ, 泥(n)=ㄴ, 幫(p)=ㅍ, 滂(pʰ)=ㅍᆞ, 並(b)=ㅃ, 明(m)=ㅁ, 非(f)=ㅂ, 奉(v)=ㅄ, 微(w)=ㅄ, 精(s)=ㅅ, 清(sʰ)=ㅆ, 從

② 非母(16字)	正音 分	俗音 븐
③ 奉母(18字)	正音 뿐	俗音 뵈
④ 幫母(3字)	正音 분	俗音 븐
⑤ 滂母(2字)	正音 푼	俗音 픈
⑥ 並母(2字)	正音 뿐	俗音 뵈
⑦ 明母(7字)	正音 문	俗音 믄
⑧ 透母(5字) <sup>5)</sup>	正音 툄	俗音 튼
⑨ 疑母(2字)	正音 은	俗音 은
■ 九 寒韻		
① 匣母(9字)	正音 현	俗音 현
② 溪母(4字)	正音 컨	俗音 칸
③ 見母(9字)	正音 건	俗音 간
④ 影母(3字)	正音 헌	俗音 한
⑤ 疑母(7字)	正音 원	俗音 원
⑥ 滂母(2字)	正音 푼	俗音 편
⑦ 幫母(2字)	正音 뵈	俗音 번
⑧ 並母(22字)	正音 뵈	俗音 뵈
⑨ 明母(14字)	正音 뵈	俗音 먼
⑩ 匣母(13字) <sup>6)</sup>	正音 현	俗音 원
⑪ 曉母(1字)	正音 헌	俗音 한
■ 十 刪韻		
① 疑母(1字)	正音 안	俗音 안
② 疑母(1字)	正音 완	俗音 완
③ 疑母(1字)	正音 안	俗音 안
④ 滂母(2字) <sup>7)</sup>	正音 판	俗音 편
⑤ 非母(14字)	正音 환	俗音 환
⑥ 奉母(15字)	正音 뵈	俗音 뵈

(dz)=ㄷ, 心(s)=ㄷ, 邪(z)=ㄷ, 照(tj)=ㄷ, 穿(tj<sup>h</sup>)=ㄷ, 牀(dj)=ㄷ, 審(j)=ㄷ, 禪  
(z)=ㄷ, 影(?)=ㅇ, 曉(x)=ㅎ, 匣(y)=ㅇ, 喻(零)=ㅇ, 來(l)=ㄹ, 日(z)=ㄷ.

5) 본 字母에 속한 5字 중 “吞”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6) 본 字母에 속한 13字 중 “完, 丸” 2字에 又音 표기 “원”이 달려 있다.

7) 본 字母에 속한 2字 중 “攀”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卷第四](平聲)**

■ 十一 先韻

※ 俗音 표기 없음

■ 十二 蕭韻

① 心母(27字)            正音 설            俗音 샅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中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十三 爻韻

① 疑母(18字)            正音 알            俗音 알

■ 十四 歌韻

① 影母(5字)<sup>8)</sup>            正音 어            俗音 하

② 疑母(10字)            正音 어            俗音 어

③ 透母(8字)<sup>9)</sup>            正音 터            俗音 타

④ 泥母(4字)<sup>10)</sup>            正音 너            俗音 나

⑤ 疑母(6字)            正音 위            俗音 위

**[卷第五](平聲)**

■ 十五 麻韻

① 疑母(10字)            正音 야            俗音 야

■ 十六 遮韻

※ 俗音 표기 없음

■ 十七 陽韻

① 牀母(6字)<sup>11)</sup>            正音 짱            俗音 쌍

② 審母(10字)            正音 상            俗音 상

③ 穿母(8字)            正音 창            俗音 창

④ 照母(5字)            正音 장            俗音 장

⑤ 牀母(7字)            正音 짱            俗音 짱

8) 본 字母에 속한 5字 중 “阿”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9) 본 字母에 속한 8字 중 “佗, 他, 它” 3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0)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那”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1) 본 字母에 속한 6字 중 “裳”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卷第六](平聲)**

■ 十八 庚韻

① 見母(10字)	正音 ㄱ	俗音 ㄱ <sub>又音</sub> ㄱ
② 溪母(7字)	正音 ㅋ	俗音 ㅋ
③ 明母(13字)	正音 ㅁ	俗音 ㅁ
④ 曉母(2字) <sup>12)</sup>	正音 ㅎ	俗音 ㅎ
⑤ 匣母(8字) <sup>13)</sup>	正音 ㅎ	俗音 ㅎ
⑥ 匣母(28字) <sup>14)</sup>	正音 ㅎ	俗音 ㅎ
⑦ 滂母(3字) <sup>15)</sup>	正音 ㅍ	俗音 ㅍ
⑧ 並母(12字)	正音 ㅃ	俗音 ㅃ
⑨ 穿母(9字) <sup>16)</sup>	正音 ㅆ	俗音 ㅆ
⑩ 牀母(6字)	正音 ㅈ	俗音 ㅈ
⑪ 審母(8字)	正音 ㅅ	俗音 ㅅ
⑫ 喻母(16字)	正音 ㅇ	俗音 ㅇ <sub>又音</sub> ㅇ
⑬ 牀母(1字)	正音 ㅉ	俗音 ㅉ
⑭ 曉母(6字) <sup>17)</sup>	正音 ㅎ	俗音 ㅎ
⑮ 照母(6字)	正音 ㅊ	俗音 ㅊ
⑯ 泥母(8字) <sup>18)</sup>	正音 ㄴ	俗音 ㄴ
⑰ 幫母(11字)	正音 ㅅ	俗音 ㅅ
⑱ 心母(3字)	正音 ㅅ	俗音 ㅅ
⑲ 溪母(3字)	正音 ㅋ	俗音 ㅋ
⑳ 群母(9字) <sup>19)</sup>	正音 ㅍ	俗音 ㅍ
㉑ 見母(6字) <sup>20)</sup>	正音 ㄱ	俗音 ㄱ
㉒ 日母(4字) <sup>21)</sup>	正音 ㄷ	俗音 ㄷ

- 12) 본 字母에 속한 2字 중 “亨”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3) 본 字母에 속한 8字 중 “恒”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4) 본 字母에 속한 28字 중 “横”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5) 본 字母에 속한 3字 중 “烹”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6) 본 字母에 속한 9字 중 “崢”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7) 본 字母에 속한 6字 중 “轟, 蕤” 2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8) 본 字母에 속한 8字 중 “能”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19) 본 字母에 속한 9字 중 “瓊”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20) 본 字母에 속한 6字 중 “扃”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          |      |                      |
|----------|------|----------------------|
| ㉓ 端母(7字) | 正音 땡 | 俗音 등                 |
| ㉔ 定母(8字) | 正音 땡 | 俗音 땡                 |
| ㉕ 來母(4字) | 正音 링 | 俗音 룡                 |
| ㉖ 心母(2字) | 正音 싱 | 俗音 승                 |
| ㉗ 精母(9字) | 正音 경 | 俗音 증                 |
| ㉘ 從母(7字) | 正音 쩡 | 俗音 쩡                 |
| ㉙ 見母(3字) | 正音 킁 | 俗音 궁 <sub>又音</sub> 깡 |
- 十九 尤韻
- |          |      |      |
|----------|------|------|
| ① 疑母(2字) | 正音 흠 | 俗音 흠 |
|----------|------|------|
- 二十 侵韻
- |          |      |      |
|----------|------|------|
| ① 淸母(9字) | 正音 킁 | 俗音 킁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      |      |
|----------|------|------|
| ② 疑母(5字) | 正音 임 | 俗音 인 |
|----------|------|------|
- 二十一 覃韻
- |           |      |      |
|-----------|------|------|
| ① 定母(10字) | 正音 땡 | 俗音 땡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      |      |
|----------|------|------|
| ② 疑母(6字) | 正音 압 | 俗音 안 |
|----------|------|------|
- 二十二 鹽韻
- |           |      |      |
|-----------|------|------|
| ① 喻母(12字) | 正音 염 | 俗音 연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上去聲亦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      |      |
|----------|------|------|
| ② 疑母(1字) | 正音 염 | 俗音 연 |
|----------|------|------|
- [卷第七](上聲)<sup>22)</sup>**
- 一 董韻
- |          |       |       |
|----------|-------|-------|
| ① 溪母(1字) | 正音 :쿵 | 俗音 :쿵 |
| ② 照母(8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③ 牀母(2字) | 正音 :쑤 | 俗音 :쑤 |
| ④ 日母(6字) | 正音 :슉 | 俗音 :슉 |

21)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仍”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22) 卷第七에서는 正音 표기가 사각의 검은 색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고 俗音 표기는 동그라미로 일부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卷第七에서는 다른 성조에 나타난 표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正音과 俗音의 추정 표기를 제시한다.

⑤ 心母(8字)	正音 :슉	俗音 :슉
⑥ 穿母(2字)	正音 :측	俗音 :측
⑦ 精母(1字)	正音 :측	俗音 :측
■ 二 紙韻		
① 照母(28字)	正音 :치	俗音 :치 <sub>又音:측</sub>
② 牀母(12字)	正音 :찌	俗音 :찌
③ 穿母(19字) <sup>23)</sup>	正音 :츠(?)	俗音 :측
④ 精母(21字)	正音 :즈	俗音 :측
⑤ 審母(8字)	正音 :시	俗音 :슉
⑥ 禪母(19字)	正音 :씨	俗音 :슉
⑦ 日母(9字)	正音 :시	俗音 :슉
⑧ 幫母(21字)	正音 :비	俗音 :빅
⑨ 邪母(11字)	正音 :쓰	俗音 :슉
⑩ 心母(1字)	正音 :스	俗音 :슉
⑪ 審母(1字)	正音 :시	俗音 :슉

## ■ 三 齊韻

① 從母(4字)	正音 :찌	俗音 :찌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中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四 語韻

※ 俗音 표기 없음

[卷第八](上聲)<sup>24)</sup>

## ■ 五 姥韻

※ 俗音 표기 없음

## ■ 六 解韻

① 見母(1字)	正音 :개	俗音 :계
② 匣母(5字)	正音 :해(?)	俗音 :해
③ 匣母(1字)	正音 :해(?)	俗音 :로(?)

23) 본 字母에 속한 19字 중 “齒, 齒, 紕, 侈” 4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24) 卷第八에서는 正音 표기가 사각의 검은 색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고 俗音 표기는 동그라미로 일부가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卷第八에서는 다른 성조에 나타난 표기의 상황을 고려하여 正音과 俗音의 추정 표기를 제시한다.

- |                         |          |          |
|-------------------------|----------|----------|
| ④ 溪母(2字)                | 正音 :캐    | 俗音 :캐    |
| ■ 七 賄韻                  |          |          |
| ① 並母(3字)                | 正音 :뽁    | 俗音 :뽁    |
| ② 明母(8字)                | 正音 :뫼    | 俗音 :뫼    |
| ③ 穿母(1字)                | 正音 :취    | 俗音 :쇄(?) |
| ④ 並母(3字)                | 正音 :뽁    | 俗音 :뽁    |
| ■ 八 軫韻                  |          |          |
| ① 心母(6字) <sup>25)</sup> | 正音 :순    | 俗音 :순    |
| ② 微母(4字)                | 正音 :훈    | 俗音 :훈    |
| ③ 奉母(12字)               | 正音 :뿐    | 俗音 :뿐    |
| ④ 非母(2字)                | 正音 :훈    | 俗音 :훈    |
| ⑤ 疑母(1字)                | 正音 :인    | 俗音 :인    |
| ⑥ 幫母(6字)                | 正音 :분    | 俗音 :분    |
| ⑦ 明母(1字)                | 正音 :문    | 俗音 :문    |
| ⑧ 疑母(2字)                | 正音 :은(?) | 俗音 :은(?) |
| ■ 九 旱韻                  |          |          |
| ① 匣母(2字)                | 正音 :현    | 俗音 :현    |
| ② 曉母(4字)                | 正音 :현    | 俗音 :현    |
| ③ 溪母(3字)                | 正音 :컨    | 俗音 :칸    |
| ④ 見母(4字)                | 正音 :컨    | 俗音 :칸    |
| ⑤ 匣母(3字)                | 正音 :현    | 俗音 :원(?) |
| ⑥ 匣母(10字)               | 正音 :현    | 俗音 :원(?) |
| ⑦ 明母(2字)                | 正音 :뫼(?) | 俗音 :뫼(?) |
| ⑧ 並母(2字)                | 正音 :뽁(?) | 俗音 :뽁(?) |
| ■ 十 産韻                  |          |          |
| ① 牀母(6字)                | 正音 :찬    | 俗音 :찬(?) |
| ② 非母(6字)                | 正音 :환    | 俗音 :환    |
| ■ 十一 銑韻                 |          |          |
| ※ 俗音 표기 없음              |          |          |

25) 본 字母에 속한 6字 중 “筍”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卷第九](上聲)

## ■ 十二 篠韻

① 心母(4字)            正音 : 설            俗音 : 샅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中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十三 巧韻

① 疑母(2字)            正音 : 할            俗音 : 양

## ■ 十四 哿韻

① 影母(3字)<sup>26)</sup>        正音 : 허            俗音 : 하

② 疑母(3字)            正音 : 어            俗音 : 여

③ 泥母(6字)<sup>27)</sup>        正音 : 너            俗音 : 나

④ 疑母(1字)            正音 : 위            俗音 : 위

## ■ 十五 馬韻

① 疑母(5字)            正音 : 야            俗音 : 야

② 匣母(4字)<sup>28)</sup>        正音 : 화            俗音 : 파

③ 疑母(1字)            正音 : 와            俗音 : 와

## ■ 十六 者韻

※ 俗音 표기 없음

## ■ 十七 養韻

① 疑母(2字)<sup>29)</sup>        正音 : 양            俗音 : 양

② 審母(7字)            正音 : 상            俗音 : 상

## ■ 十八 梗韻

① 見母(7字)            正音 : 경            俗音 : 궁<sub>又音</sub>:깁

② 匣母(1字)            正音 : هنگ            俗音 : هنگ(?)

③ 明母(3字)            正音 : 밍            俗音 : 밍

④ 來母(1字)            正音 : 링            俗音 : 링

⑤ 溪母(4字)<sup>30)</sup>        正音 : 퉁            俗音 : 퉁⑥ 影母(2字)<sup>31)</sup>        正音 : 횡            俗音 : 횡

26) 본 字母에 속한 3字 중 “𪛗”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27) 본 字母에 속한 6字 중 “娜, 那” 2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28)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𪛗”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29) 본 字母에 속한 2字 중 “仰”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30)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頃”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                         |       |       |
|-------------------------|-------|-------|
| ⑦ 審母(3字) <sup>32)</sup> | 正音 :싱 | 俗音 :승 |
| ⑧ 喻母(1字)                | 正音 :윙 | 俗音 :용 |
| ⑨ 溪母(3字)                | 正音 :킹 | 俗音 :큰 |
| ⑩ 定母(13字)               | 正音 :땡 | 俗音 :팅 |
| ⑪ 端母(1字)                | 正音 :땡 | 俗音 :땡 |
- 十九 有韻
- |          |       |       |
|----------|-------|-------|
| ① 疑母(6字) | 正音 :을 | 俗音 :을 |
|----------|-------|-------|
- 二十 寢韻
- |          |       |       |
|----------|-------|-------|
| ① 淸母(4字) | 正音 :침 | 俗音 :친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       |       |
|----------|-------|-------|
| ② 穿母(2字) | 正音 :침 | 俗音 :신 |
| ③ 疑母(1字) | 正音 :임 | 俗音 :인 |
- 二十一 感韻
- |          |       |       |
|----------|-------|-------|
| ① 見母(4字) | 正音 :감 | 俗音 :간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       |       |
|----------|-------|-------|
| ② 疑母(1字) | 正音 :암 | 俗音 :안 |
|----------|-------|-------|
- 二十二 琰韻
- |           |       |       |
|-----------|-------|-------|
| ① 喻母(13字) | 正音 :염 | 俗音 :연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       |       |
|----------|-------|-------|
| ② 疑母(2字) | 正音 :염 | 俗音 :연 |
|----------|-------|-------|
- [卷第十](去聲)**
- 一 送韻
- |          |       |       |
|----------|-------|-------|
| ① 精母(2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② 照母(8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③ 牀母(4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④ 邪母(3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⑤ 從母(1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⑥ 群母(1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⑦ 溪母(3字) | 正音 :중 | 俗音 :중 |

31) 본 字母에 속한 2字 중 “瑩”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32) 본 字母에 속한 3字 중 “省”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⑧ 見母(2字)	正音 · ㄱ	俗音 · ㄱ
⑨ 穿母(2字)	正音 · ㅋ	俗音 · ㅋ
■ 二 眞韻		
① 照母(24字)	正音 · ㄷ	俗音 · ㄷ
② 精母(11字)	正音 · ㅈ	俗音 · ㅈ
③ 穿母(10字)	正音 · ㅊ	俗音 · ㅊ
④ 禪母(21字)	正音 · ㅅ	俗音 · ㅅ
⑤ 日母(12字)	正音 · ㄷ	俗音 · ㅅ <sup>33)</sup>
⑥ 心母(21字)	正音 · ㅈ	俗音 · ㅅ <sup>34)</sup>
⑦ 從母(4字)	正音 · ㅈ	俗音 · ㅈ
⑧ 照母(14字)	正音 · ㄷ	俗音 · ㄷ
⑨ 牀母(11字)	正音 · ㅈ	俗音 · ㅈ
⑩ 穿母(1字)	正音 · ㅊ	俗音 · ㅊ
⑪ 審母(13字)	正音 · ㅅ	俗音 · ㅅ
⑫ 禪母(7字)	正音 · ㅅ	俗音 · ㅅ
⑬ 穿母(3字)	正音 · ㅊ	俗音 · ㅊ
⑭ 淸母(8字)	正音 · ㅈ	俗音 · ㅈ
⑮ 審母(5字)	正音 · ㅅ	俗音 · ㅅ
⑯ 穿母(6字)	正音 · ㅊ	俗音 · ㅊ
■ 三 霽韻		
① 精母(6字)	正音 · ㅈ	俗音 · ㅈ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中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明母(4字)	正音 · ㅁ	俗音 · ㅁ

[卷第十一](去聲)

- 四 御韻
  - ※ 俗音 표기 없음
- 五 暮韻
  - ※ 俗音 표기 없음
- 六 泰韻

33) 본 俗音 표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으나, 1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34) 본 俗音 표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으나, 1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定母(4字) <sup>35)</sup>	正音 · 때	俗音 · 따
② 見母(22字)	正音 · 개	俗音 · 계
③ 疑母(2字)	正音 · 해	俗音 · 애
④ 溪母(2字)	正音 · कै	俗音 · 케
⑤ 匣母(11字)	正音 · 헤	俗音 · 헤

■ 七 隊韻

① 滂母(9字)	正音 · 뷔	俗音 · 피
② 並母(18字)	正音 · 뽀	俗音 · 피
③ 幫母(4字)	正音 · 뷔	俗音 · 비
④ 明母(17字)	正音 · 뽀	俗音 · 비
⑤ 喻母(6字)	正音 · 위	俗音 · 위

■ 八 震韻

① 疑母(2字)	正音 · 인	俗音 · 인
② 幫母(1字)	正音 · 분	俗音 · 분
③ 微母(10字)	正音 · 문	俗音 · 문
④ 奉母(12字)	正音 · 뽐	俗音 · 뽐
⑤ 滂母(1字)	正音 · 푼	俗音 · 푼
⑥ 並母(3字)	正音 · 뽐	俗音 · 뽐
⑦ 明母(2字)	正音 · 문	俗音 · 문

[卷第十二](去聲)

■ 九 翰韻

① 匣母(15字)	正音 · 현	俗音 · 현 <sup>36)</sup>
② 見母(7字)	正音 · 건	俗音 · 간
③ 曉母(3字)	正音 · 현	俗音 · 한
④ 溪母(4字)	正音 · 킨	俗音 · 칸
⑤ 影母(2字)	正音 · 현	俗音 · 한
⑥ 疑母(8字)	正音 · 언	俗音 · 안
⑦ 疑母(8字)	正音 · 윈	俗音 · 윈
⑧ 幫母(3字)	正音 · 뽐	俗音 · 뽐

35)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大”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36) 본 俗音 표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으나, 1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⑨ 滂母(8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⑩ 並母(4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⑪ 明母(10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⑫ 清母(3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 十 諫韻                  |        |        |
| ① 非母(1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② 疑母(1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③ 疑母(2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④ 非母(5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⑤ 奉母(1字)                | 正音 · 滂 | 俗音 · 滂 |
| ■ 十一 霰韻                 |        |        |
| ※ 俗音 표기 없음              |        |        |
| ■ 十二 嘯韻                 |        |        |
| ① 心母(9字)                | 正音 · 嘯 | 俗音 · 嘯 |
| ■ 十三 效韻                 |        |        |
| ① 疑母(1字)                | 正音 · 嘯 | 俗音 · 嘯 |
| ② 疑母(8字)                | 正音 · 嘯 | 俗音 · 嘯 |
| ■ 十四 箇韻                 |        |        |
| ① 疑母(2字)                | 正音 · 箇 | 俗音 · 箇 |
| 【卷第十三】(去聲)              |        |        |
| ■ 十五 禡韻                 |        |        |
| ① 疑母(8字)                | 正音 · 禡 | 俗音 · 禡 |
| ② 疑母(1字)                | 正音 · 禡 | 俗音 · 禡 |
| ■ 十六 蔗韻                 |        |        |
| ※ 俗音 표기 없음              |        |        |
| ■ 十七 漾韻                 |        |        |
| ① 照母(1字)                | 正音 · 漾 | 俗音 · 漾 |
| ② 穿母(5字)                | 正音 · 漾 | 俗音 · 漾 |
| ③ 曉母(7字) <sup>37)</sup> | 正音 · 漾 | 俗音 · 漾 |
| ④ 照母(7字)                | 正音 · 漾 | 俗音 · 漾 |

37) 본 字母에 속한 7字 중 “況, 況, 況, 况” 4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                         |       |                        |
|-------------------------|-------|------------------------|
| ⑤ 牀母(1字)                | 正音 ·장 | 俗音 ·장                  |
| ⑥ 審母(2字)                | 正音 ·상 | 俗音 ·상                  |
| ⑦ 穿母(2字)                | 正音 ·창 | 俗音 ·창                  |
| ■ 十八 敬韻                 |       |                        |
| ① 審母(3字)                | 正音 ·상 | 俗音 ·승                  |
| ② 見母(1字)                | 正音 ·경 | 俗音 ·궁 <sub>又音</sub> ·깁 |
| ③ 幫母(5字)                | 正音 ·빙 | 俗音 ·붕                  |
| ④ 明母(8字)                | 正音 ·명 | 俗音 ·몽                  |
| ⑤ 喻母(6字)                | 正音 ·영 | 俗音 ·용                  |
| ⑥ 照母(8字)                | 正音 ·장 | 俗音 ·중                  |
| ⑦ 影母(4字) <sup>38)</sup> | 正音 ·형 | 俗音 ·형                  |
| ⑧ 精母(2字)                | 正音 ·경 | 俗音 ·증                  |
| ⑨ 端母(9字)                | 正音 ·당 | 俗音 ·등                  |
| ⑩ 定母(6字)                | 正音 ·땡 | 俗音 ·땡                  |
| ⑪ 幫母(2字)                | 正音 ·빙 | 俗音 ·붕                  |
| ⑫ 從母(1字)                | 正音 ·쨍 | 俗音 ·쨍 <sup>39)</sup>   |
| ⑬ 見母(6字)                | 正音 ·경 | 俗音 ·궁 <sub>又音</sub> ·깁 |
| ⑭ 來母(3字)                | 正音 ·렁 | 俗音 ·룽                  |
| ⑮ 淸母(2字) <sup>40)</sup> | 正音 ·칭 | 俗音 ·충                  |
| ⑯ 日母(4字) <sup>41)</sup> | 正音 ·싱 | 俗音 ·신                  |
| ■ 十九 宥韻                 |       |                        |
| ① 疑母(1字)                | 正音 ·흘 | 俗音 ·을                  |
| ■ 二十 沁韻                 |       |                        |
| ① 疑母(1字)                | 正音 ·임 | 俗音 ·인                  |
| ■ 二十一 勘韻                |       |                        |
| ① 溪母(2字)                | 正音 ·캅 | 俗音 ·칸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38)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瑩”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39) 본 俗音 표기에는 방점이 찍혀 있지 않으나, 1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

40) 본 字母에 속한 2字 중 “躡”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41)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認”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 二十二 豔韻

- ① 喻母(9字)            正音 · 염            俗音 · 연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疑母(3字)            正音 · 염            俗音 · 연

## 【卷第十四】(入聲)

## ■ 一 屋韻

- ① 影母(4字)            正音 · 혹            俗音 · 흥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心母(4字)            正音 · 숙            俗音 · 송  
 ③ 精母(10字)          正音 · 죽            俗音 · 충  
 ④ 審母(9字)            正音 · 숙            俗音 · 송  
 ⑤ 穿母(13字)          正音 · 축            俗音 · 충  
 ⑥ 照母(16字)          正音 · 죽            俗音 · 증  
 ⑦ 牀母(8字)            正音 · 족            俗音 · 풍  
 ⑧ 精母(1字)            正音 · 죽            俗音 · 중

## ■ 二 質韻

- ① 照母(16字)          正音 · 진            俗音 · 징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審母(3字)            正音 · 슌            俗音 · 쉹  
 ③ 疑母(5字)            正音 · 인            俗音 · 잉  
 ④ 並母(13字)          正音 · 뿐            俗音 · 뽕  
 ⑤ 疑母(10字)          正音 · 훈            俗音 · 웅

## ■ 三 曷韻

- ① 匣母(6字)            正音 · 현            俗音 · 흥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 四 轄韻

- ① 匣母(8字)            正音 · 환            俗音 · 향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疑母(5字)            正音 · 얀            俗音 · 양  
 ③ 奉母(7字)            正音 · 환            俗音 · 향  
 ④ 非母(4字)            正音 · 환            俗音 · 향

**[卷第十五](入聲)**

■ 五 屑韻

- ① 心母(22字)            正音 · 션            俗音 · 성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 六 藥韻

- ① 喻母(17字)            正音 · 약            俗音 · 양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審母(7字)            正音 · 삭            俗音 · 살  
 ③ 溪母(15字)            正音 · 각            俗音 · 경  
 ④ 穿母(6字)            正音 · 착            俗音 · চাল

**[卷第十六](入聲)**

■ 七 陌韻

- ① 明母(17字)            正音 · 믱            俗音 · 멩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曉母(4字)<sup>42)</sup>        正音 · 희            俗音 · 형  
 ③ 喻母(4字)            正音 · 의            俗音 · 잉  
 ④ 並母(8字)<sup>43)</sup>        正音 · 뵻            俗音 · 핑  
 ⑤ 喻母(15字)            正音 · 익            俗音 · 잉  
 ⑥ 疑母(10字)            正音 · 획            俗音 · 잉

■ 八 緝韻

- ① 淸母(4字)            正音 · 칩            俗音 · 칭  
 ※ 俗音 표기 다음에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日母(2字)<sup>44)</sup>        正音 · 십            俗音 · 송

■ 九 合韻

- ① 匣母(10字)            正音 · 햅            俗音 · 햅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② 見母(9字)<sup>45)</sup>        正音 · 갑            俗音 · 경

42) 본 字母에 속한 4字 중 “赫”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43) 본 字母에 속한 8字 중 “關”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44) 본 字母에 속한 2字 중 “入”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45) 본 字母에 속한 9字 중 “合”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十 葉韻

- ① 喻母(14字)      正音 ·엽      俗音 ·영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卷第一(缺本復原篇)](平聲)<sup>46)</sup>

■ 一 東韻

- |           |      |      |
|-----------|------|------|
| ① 來母(19字) | 正音 룡 | 俗音 룡 |
| ② 精母(3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③ 從母(1字)  | 正音 쯡 | 俗音 쯡 |
| ④ 心母(10字) | 正音 승 | 俗音 승 |
| ⑤ 穿母(19字) | 正音 충 | 俗音 충 |
| ⑥ 照母(12字) | 正音 중 | 俗音 중 |
| ⑦ 日母(13字) | 正音 승 | 俗音 승 |
| ⑧ 牀母(7字)  | 正音 쯡 | 俗音 쯡 |
| ⑨ 見母(8字)  | 正音 궁 | 俗音 궁 |
| ⑩ 溪母(5字)  | 正音 쿡 | 俗音 쿡 |
| ⑪ 審母(6字)  | 正音 승 | 俗音 승 |

■ 二 支韻

- |           |      |                      |
|-----------|------|----------------------|
| ① 照母(38字) | 正音 지 | 俗音 짓 <sub>又音</sub> 즈 |
| ② 審母(26字) | 正音 시 | 俗音 슨                 |
| ③ 穿母(4字)  | 正音 츠 | 俗音 츠                 |
| ④ 禪母(9字)  | 正音 씨 | 俗音 슨                 |
| ⑤ 日母(14字) | 正音 시 | 俗音 슨                 |
| ⑥ 心母(22字) | 正音 스 | 俗音 슨                 |
| ⑦ 淸母(1字)  | 正音 츠 | 俗音 츠                 |
| ⑧ 精母(30字) | 正音 즈 | 俗音 즈                 |
| ⑨ 從母(16字) | 正音 쯡 | 俗音 쯡                 |
| ⑩ 照母(3字)  | 正音 지 | 俗音 짓                 |
| ⑪ 穿母(21字) | 正音 치 | 俗音 칫                 |
| ⑫ 牀母(20字) | 正音 쯡 | 俗音 쯡                 |

46) 卷第一은 缺本으로 高麗大學校 出版部 影印本에서 복원한 내용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 |           |      |      |
|-----------|------|------|
| ⑬ 幫母(16字) | 正音 비 | 俗音 비 |
| ⑭ 邪母(6字)  | 正音 쓰 | 俗音 쯤 |
- 三 齊韻
- |          |      |      |
|----------|------|------|
| ① 從母(3字) | 正音 쨌 | 俗音 찌 |
|----------|------|------|
- ※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中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있음

[卷第二(缺本復原篇)](平聲)<sup>47)</sup>

- 四 魚韻
- ※ 俗音 표기 없음
- 五 模韻
- ※ 俗音 표기 없음
- 六 皆韻
- |           |      |      |
|-----------|------|------|
| ① 見母(12字) | 正音 개 | 俗音 계 |
| ② 溪母(3字)  | 正音 캐 | 俗音 켜 |
| ③ 匣母(7字)  | 正音 해 | 俗音 험 |
- 七 灰韻
- |                          |      |      |
|--------------------------|------|------|
| ① 幫母(2字)                 | 正音 뷔 | 俗音 비 |
| ② 滂母(15字)                | 正音 뷔 | 俗音 피 |
| ③ 明母(20字)                | 正音 뫼 | 俗音 미 |
| ④ 群母(11字) <sup>48)</sup> | 正音 꺼 | 俗音 끼 |
| ⑤ 並母(8字)                 | 正音 뺨 | 俗音 뺨 |
| ⑥ 審母(2字)                 | 正音 쉬 | 俗音 쇠 |

《譯訓》에 나타난 漢語音 표기를 논의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俗音의 전체 목록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후 연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俗音이 출현하는 전체 부류를 제시하였다. 아래의 III장과 IV장에서는 <표 1>에서 정리된 正音과 俗音의 표기 차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俗音 표기를 붙이게 된 목적에 대하여 논의한다.

47) 卷第二는 缺本으로 高麗大學校 出版部 影印本에서 복원한 내용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48) 본 字母에 속한 11字 중 “羸” 1字에 俗音 표기가 달려 있다.

### Ⅲ. 俗音이 注音된 부류의 분석

본 장에서는 II장의 <표 1>에서 제시된 俗音이 注音된 부류의 표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正音과 俗音의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표 1>에 제시된 俗音이 注音된 부류를 음운 변화의 반영 및 표기상의 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요인에 분류하고, 각 요인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다. 俗音이 注音된 각 부류의 표시는 <표 1>에서의 卷, 韻과 字母 앞의 숫자로 제시한다.

#### 1. 疑母의 소실

中古 疑母의 소실은 《譯訓》의 俗音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聲母 변화 현상이다. 中古 疑母, 影母, 微母 등은 근대 시기에 零聲母化(喻母化) 하는데, 朝鮮 漢學書에서는 疑母가 가장 먼저 소실되었고 다음으로 影母 그리고 微母 순으로 喻母化가 나타나고 있다. 中古 疑母는 《譯訓》의 正音에서는 “ㅇ” 표기로 남아 있으나, 俗音에서는 이의 喻母化 과정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疑母 소실 과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俗音에서 疑母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卷第十六]陌韻③⑤”에서와 같이 일부 喻母(ㅇ)는 俗音에서 疑母(ㅇ)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주목을 끈다. 俗音에서 疑母의 소실을 반영하는 부류는 <표 2>와 같다.

#### <표 2> 疑母의 소실

[卷第三]眞韻⑨, 寒韻⑤, 刪韻①②③ / [卷第四]爻韻①, 歌韻②⑤ / [卷第五]麻韻① / [卷第六]尤韻①, 侵韻②, 覃韻②, 鹽韻② / [卷第八]軫韻⑤⑧ (?) / [卷第九]巧韻①, 哿韻②④, 馬韻①③, 有韻①, 寢韻③, 感韻②, 琰韻② / [卷第十一]泰韻③, 震韻① / [卷第十二]翰韻⑥⑦, 諫韻②③, 效韻①②, 箇韻① / [卷第十三]禡韻①②, 宥韻①, 沁韻①, 豔韻② / [卷第十四]質韻③⑤, 轄韻② / [卷第十六]陌韻⑥

## 2. 全濁音과 관련된 변화

《譯訓》을 비롯한 朝鮮 漢學書에서는 全濁音이 各自並書로 표기되었다. 16세기 초에 간행된 최초의 譯學書인 《翻譯老乞大》·《翻譯朴通事》(이상 1515년경)(이하 《翻譯老朴》)에서는 《譯訓》의 俗音에 기반한 규범음인 좌측음에서 全濁音 표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실음인 우측음에서는 全濁音 표기가 모두 사라졌다. 즉 좌측음에서 全濁音으로 나타난 글자의 경우 우측음에서 平聲字는 次清의 陽平字로, 上聲·去聲字는 全清의 去聲字로 나타나며, 全濁音 入聲字가 全清音으로 변하는 과정도 잘 반영하고 있다(졸고 2009: 495). 이는 기본적으로는 16세기 당시 우리말에서 全廢된 各自並書를 허용하지 않는 國俗撰字之法이라는 표기상의 원인과 관련된 것이지만 또한 16세기 초에 全濁音 소실의 중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5세기 중반의 北方音을 나타내는 《譯訓》의 俗音 표기에서 비교적 온전하게 全濁音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언어 현실에서 全濁音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해당 글자 聲母의 근원이 全濁音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일종의 전통적인 음운 범주를 표시하는 규범음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譯訓》의 正音과 俗音 사이에는 濁音清化와 같이 全濁音과 관련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음운변화 현상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全濁音 聲母에서 몇 가지 표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기의 변화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당시 北方音에서 나타난 濁音清化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당시 北方音의 방언배경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표 3> 全濁音과 관련된 聲母 표기 변화

- (1) ㄸ → ㅌ  
[卷第九]梗韻⑩

- (2) 𠄎 → ㄩ  
[卷第十六]陌韻④
- (3) ㄱ → ㄱ  
[卷第五]陽韻①
- (4) ㄱ → ㄱ  
[卷第三]寒韻⑩ / [卷第八]旱韻⑤(?)⑥(?)
- (5) ㄱ → ㄱ  
[卷第九]梗韻②(?)
- (6) ㄱ → ㄱ  
[卷第九]馬韻②

### 3. 唇音字 韻母 變化

《譯訓》에서는 重唇音 幫母(ㄱ), 滂母(ㄱ), 並母(𠄎), 明母(ㄱ)와 輕唇音 非母(ㄱ), 奉母(ㄱ), 微母(ㄱ)의 총 일곱 聲母가 唇音으로 나타나고 있다. 《譯訓》의 俗音에서는 聲母가 唇音인 경우 후속하는 韻母에서 여러 종류의 표기 변화가 나타난다. <표 4>에서 (1), (2), (3), (4)는 唇音 聲母가 “ㄱ”과 결합하지 않도록 하는 이화(dissimilation)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5)는 中古 止攝이나 蟹攝에서 나타난 “i > ei”의 韻母 變化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 4> 唇音字 韻母의 變化

- (1) ㄱ → ㄱ (韻尾 ㄱ)<sup>49)</sup>  
[卷第三]眞韻①②③④⑤⑥⑦ / [卷第八]軫韻②③④⑥⑦ / [卷第十一]震韻②③④⑤⑥⑦
- (2) ㄱ → ㄱ (韻尾 ㄱ)  
[卷第三]寒韻⑥⑦⑨<sup>50)</sup> / [卷第八]旱韻⑦(?)⑧(?) / [卷第十二]翰韻⑧⑨⑩⑪

49) “[卷第三]眞韻⑧透母(5字)”에서 “吞”은 正音이 “툰”, 俗音이 “툰”으로 舌音字이나 이러한 유형의 主母音 표기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50) “[卷第三]寒韻⑧並母(22字)”의 正音은 “뵤”, 俗音은 “뵤”으로 나타나고 있다.

(3) ㅏ → ㅓ (韻尾 ㅓ 또는 韻尾 ㅇ)

[卷第三]刪韻⑤⑥ / [卷第八]產韻② / [卷第十二]諫韻①④⑤ / [卷第十四]轄韻③④

(4) ㅓ → ㅓ

[卷第二]灰韻①②③⑤ / [卷第八]賄韻①②④ / [卷第十一]隊韻①②③④

(5) ㅣ → ㅓ

[卷第一]支韻③ / [卷第七]紙韻⑧

#### 4. 入聲 韻尾 및 韻母 표기의 변화

《譯訓》 수록자의 字音만을 표시한 《四聲通攷》(1455년경)(이하 《通攷》)의 凡例에서는 入聲 韻尾가 南方音에서는 분명하지만 北方音에서는 促急이라는 성격이 남아 있는 채 소실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51)</sup> 따라서 《譯訓》의 俗音에서는 “ㄱㄷㅂ” 終聲(入聲韻尾)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平·上·去聲의 陰聲韻과 같은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入聲 韻尾를 “ㅇ”으로 표시하고 藥韻에서만 入聲 韻尾 “ㄱ”으로 표시하였다.<sup>52)</sup> 入聲 韻尾 “ㄱ”은 平·上·去聲의 韻尾 “ㅇ”에 대응하는 入聲

51) 《通攷》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이 책의 凡例는 《四聲通解》의 뒤에 붙어 있는데, 凡例에 당시 入聲 韻尾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入聲諸韻終聲, 今南音傷於太白, 北音流於緩弛, ……本韻之作併同析異, 而入聲諸韻牙舌唇終聲, 皆別而不雜. 今以ㄱㄷㅂ爲終聲, 然直呼以ㄱㄷㅂ則又似所謂南音, 但微用而急終之不至太白可也. 且今俗音雖不用終聲, 而不至如平上去之緩弛, 故俗音終聲, 於諸韻用喉音全清ㅇ, 藥韻用唇輕全清ㄱ以別之.” (《通攷》 凡例) (入聲 諸韻의 終聲은 현재 南方音은 너무 분명함에 치우치고 北方音은 느슨하다. …… 本韻을 지음에도 같은 것은 아우르고 다른 것은 나누니 入聲 諸韻에서도 牙舌唇音의 終聲은 모두 구별하여 섞지 않았다. 이제 ‘ㄱㄷㅂ’을 終聲으로 함에 있어 바로 ‘ㄱㄷㅂ’을 발음하면 南方音에 가깝게 되니 다만 미미하게 소리를 내고 급히 마치되 지나치게 분명함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俗音에서는 비록 終聲을 사용하지 않으나 平上去聲의 느슨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俗音의 終聲에서는 諸韻에 喉音의 全清인 ‘ㅇ’을 사용하고 藥韻에서만 唇輕音 全清인 ‘ㄱ’을 사용하여 구별하였다.)

52) 王力(1980: 134-135)에서는 14세기의 北京語에서 이미 入聲 韻尾 “-p, -t, -k”가 소실되었고, 짧은 기간 동안 “-ʔ”의 단계를 거친 후 開口 음절로 변화

의 韻尾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蒙古韻》의 표음을 준용한 것이다(줄고 2012: 55-56). 入聲 소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藥韻을 구성하는 中古 覺·鐸·藥韻의 글자들은 中古 시기 “-k” 韻尾를 가졌던 것으로 藥韻의 “ㄴ” 韻尾는 “-k” 韻尾가 약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入聲 韻尾 “ㅇ”으로의 변화

[卷第十四]屋韻·質韻·曷韻·轄韻 전체 / [卷第十五]屑韻 전체 / [卷第十六]陌韻·緝韻·合韻·葉韻 전체

<표 6> 入聲 韻尾 “ㄴ”으로의 변화

[卷第十五]藥韻 전체<sup>53)</sup>

入聲字 韻母 관련 표기는 《譯訓》에서 《翻譯老朴》에 이르기까지 조선 초기 漢學書에 나타난 漢語音 표기에서 주목을 끈 부분의 하나이다. 이들 문헌의 入聲字 韻母 표기는 위에서 언급한 入聲 韻尾의 소실이라는 중요한 현상과도 관련되고 또한 당시 北方音에서의 文白異讀 현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譯訓》의 俗音を 기반으로 하는 《翻譯老朴》의 좌측음은 우측음과 비교할 때 入聲字에서 白讀의 성격이 강하다.<sup>54)</sup> 아래의 <표 7>을 비롯하여 《譯訓》正音과 俗音의 入聲字 韻母 표기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文白異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4~15세기 北方漢語音의 文白異讀 상황과 한글 표기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

한 것으로 보았다. 《譯訓》의 俗音에는 이러한 入聲 韻尾의 변화 과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53) “[卷第十五]藥韻③溪母(15字)”에는 俗音 표기가 “·꺠”으로 되어 있어 韻尾가 “ㅇ”이다.

54) 《翻譯老朴》에서는 曾攝 開口 1等, 曾攝 開口 3等 莊系, 梗攝 開口 2等 및 藥韻의 일부 글자에서 文白異讀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줄고 2012: 57-61).

만, 文白異讀 현상의 각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표 7>의 (6), (8)은 入聲韻 韻母의 간략화를 반영하는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入聲 韻尾 -p, -t, -k 소실 이후 主母音이 高母音化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표 7> 入聲字 韻母 관련 표기

- (1) 卜 → ㄷ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六]合韻①②
- (2) 卜 → ㅍ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ㅍ)  
[卷第十五]藥韻②④
- (3) 卜 → ㄷ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五]藥韻③
- (4) ㄸ → ㅌ (正音 韻尾 ㄸ, 俗音 韻尾 ㅇ)  
[卷第十四]質韻④
- (5) ㄸ → ㅌ (正音 韻尾 ㄸ, 俗音 韻尾 ㅇ)  
[卷第十四]質韻②
- (6) ㅍ → ㅍ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四]屋韻②③④⑤⑥⑦⑧
- (7) ㅍ → ㅍ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六]緝韻②
- (8) ㅍ → ㅍ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六]陌韻⑥
- (9) ㄷ → ㅌ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六]陌韻①
- (10) ㄷ → ㅌ (正音 韻尾 ㅍ, 俗音 韻尾 ㅇ)  
[卷第十六]陌韻②

5. 鼻音 韻尾의 변화

王力(1980: 135-136)에서는 中古 -m韻尾가 -n韻尾로 변화하는 현상이 《中原音韻》(1324)의 唇音字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고 《西儒耳目資》

(1626)에서 완료된 것으로 보아 北方音에서는 16세기 이전에 -m韻尾가 소실된 것으로 보았다. 《譯訓》의 俗音에서도 韻尾 “-m > -n” 현상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ŋ > -n” 변화를 반영하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표 8> 韻尾 “-m > -n” 변화

[卷第六]侵韻·覃韻·鹽韻 전체 / [卷第九]寢韻·感韻·琰韻 전체 / [卷第十三]沁韻·勘韻·豔韻 전체<sup>55)</sup>

<표 9> 韻尾 “-ŋ > -n” 변화

[卷第六]庚韻<sup>22)</sup> / [卷第九]梗韻<sup>9)</sup> / [卷第十三]敬韻<sup>16)</sup>

## 6. 韻母의 간략화

中古 시기 이후 근대 시기를 거치면서 北方漢語의 韻母는 전반적으로 간략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韻頭나 韻尾가 소실되어 韻母가 간략화하며, 이 과정에서 主母音이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韻母의 간략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譯訓》의 正俗音 표기를 항목 별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韻母의 간략화를 반영하는 표기

(1) ㅁ → ㅂ (韻尾 없음)

[卷第十一]泰韻<sup>1)</sup>

(2) ㅍ → ㅌ (韻尾 없음)

[卷第一]齊韻 전체 / [卷第七]齊韻 전체 / [卷第十]霽韻 전체<sup>56)</sup>

55) -m韻尾字로 구성된 韻 중에서 沁韻에서만 俗音 표기 다음에 “韻中諸字終聲同” 또는 “韻內諸字終聲同”이라는 기록이 없으나, 沁韻 소속자 역시 모두 -n韻尾化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ㄲ → ㄱ (韻尾 ㅇ)  
 [卷第一]東韻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 [卷第七]董韻①②③④⑤⑥⑦ / [卷第十]送韻①②③④⑤⑥⑦⑧⑨
- (4) ㄲ → ㄱ (韻尾 ㄴ)  
 [卷第八]軫韻①
- (5) ㄱ → ㄱ (韻尾 ㅇ)  
 [卷第六]庚韻⑥⑭
- (6) ㄱ → ㄴ (韻尾 없음)  
 [卷第二]灰韻④
- (7) ㄴ → ㄲ (韻尾 ㅇ)  
 [卷第六]庚韻⑫⑰ / [卷第九]梗韻⑧ / [卷第十三]敬韻⑤
- (8) ㄴ → ㄴ (韻尾 ㅇ)  
 [卷第六]庚韻⑫⑰⑳ / [卷第九]梗韻⑤⑥ / [卷第十三]敬韻⑦
- (9) ㄴ → ㄴ (韻尾 ㅇ)  
 [卷第六]庚韻①②③⑦⑧⑨⑩⑪⑬⑮⑯⑰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 / [卷第九]梗韻①③④⑦⑪, 梗韻⑨<sup>57)</sup> / [卷第十三]敬韻①②③④⑥⑧⑨⑩⑪⑫⑬⑭⑮
- (10) ㄴ → ㄴ (韻尾 ㅇ)  
 [卷第六]庚韻①④㉑ / [卷第九]梗韻① / [卷第十三]敬韻②⑬

### 7. 기타 韻母 표기의 변화

위에서 제시한 韻母 변화 이외에 《譯訓》의 正音과 俗音 사이에는 다른 韻母 표기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표기 변화는 대부분 근대 시기에 나타난 韻母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韻頭의 轉化 현상은 근대 시기에 비교적 보편적인 규율성을 가지고 나타났다(王力 1980: 136-143). <표 11>에서 (1)은 開口呼가 齊齒呼로, (8)은 齊齒呼가 開口呼로, (2), (3), (6)은 開口呼가 合口呼로 변화한 것이다. (4), (5), (7)은 해당 글

56) 霽韻에 속한 글자 중 明母에 속한 “寐, 靡, 袂, 謎” 네 글자의 俗音은 “·미”로 제시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57) 본 부류에 속한 글자들의 俗音 표기는 “:큰”이다.

자들에서 主母音이 “a(ㅏ)”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며, 반면 (11)은 主母音 “a(ㅏ)”가 “a(ㅑ)”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9), (10)은 소수의 글자들에서 나타난 국지적인 변화이다.

<표 11> 기타 韻母 표기의 변화

- (1) ㅏ → ㅑ (韻尾 ㅅ)  
[卷第九]養韻①
- (2) ㅏ → ㅑ (韻尾 ㅅ)  
[卷第五]陽韻②③④⑤ / [卷第九]養韻② / [卷第十三]漾韻①②④⑤⑥⑦
- (3) ㅏ → ㅑ (韻尾 ㄴ)  
[卷第八]產韻①(?)
- (4) ㅑ → ㅏ (韻尾 없음)  
[卷第四]歌韻①③④ / [卷第九]哿韻①③
- (5) ㅑ → ㅏ (韻尾 ㄴ)<sup>58)</sup>  
[卷第三]寒韻①②③④⑩ / [卷第八]旱韻①②③④ / [卷第十二]翰韻①②③④⑤⑥
- (6) ㅑ → ㅑ (韻尾 ㄴ)  
[卷第十二]翰韻⑫
- (7) ㅑ → ㅑ (韻尾 ㅁ)  
[卷第四]蕭韻 전체 / [卷第九]篠韻 전체 / [卷第十二]嘯韻 전체<sup>59)</sup>
- (8) ㅑ → ㅑ (韻尾 ㅅ)  
[卷第六]庚韻⑤⑩
- (9) ㅑ → ㅑ (韻尾 ㅅ)  
[卷第十三]漾韻③
- (10) ㅑ → ㅑ (韻尾 없음)  
[卷第二]灰韻⑥

58) “[卷第三]刪韻④滂母(2字)”에서 “攀”은 正音이 “판”, 俗音이 “편”으로 이 유형과는 반대로 표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59) 蕭韻(平聲)과 篠韻(上聲)과는 달리 嘯韻(去聲)에는 俗音 표기 뒤에 “韻中諸字中聲(並)同”이라는 기록이 없으나 蕭韻, 篠韻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1) ㅁ → ㅅ (韻尾 없음)

[卷第二]皆韻①②③ / [卷第八]解韻①②(?)④ / [卷第十一]泰韻②④⑤

8. 支·紙·寘 三韻의 韻母 변화와 終聲 표기

“支(平)·紙(上)·寘(去)”韻에서 齒音字 俗音의 主母音 표기는 “-i)”와 “| (i)”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齒音字 韻母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줄고 2012: 51). 예를 들어 正齒音 3等字인 “支, 紙”의 경우 《譯訓》의 正音에서는 主母音 표기가 “|”인 반면 俗音에서는 “-”와 “|” 두 가지 표기가 공존하고 있다. 齒頭音 4等字의 경우는 《譯訓》에서 이미 主母音 표기가 “-”로 나타나고 있다.<sup>60)</sup> 支·紙·寘韻 正齒音의 俗音에서 “莊系, 章系”는 主母音이 “-i)(章系 일부는 | (i))”로, “知系”는 主母音이 “| (i)”로 되어 있는데, 이는 권설음화의 속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莊系가 먼저 권설음화하고 章系가 莊系에 병입되어 照系를 형성하며, 이후 知系가 과괄음화한 후 照系에 병입되는 北方漢語 권설음화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韻에서 齒頭音은 표기상으로는 “-i)”로 변화가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며, 正齒音은 주로 “知系”가 여전히 主母音 표기 “| (i)”를 가지고 있어서 이들 글자는 권설음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로 볼 수 없다.

<표 12> 支·紙·寘韻 齒音字 韻母 변화

[卷第一]支韻①②④⑤ / [卷第七]紙韻①⑤⑥⑦ / [卷第十]寘韻④⑤⑩

60) 李敦柱(2003: 386-387)에서 이 글자들은 같은 齒音이라도 聲母의 자질에 따라 《譯訓》의 正音에서 齒頭音의 4等韻은 “-i)”로, 正齒音과 半齒音系는 모두 “| (i)”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처럼 표기된 이유는 齒頭音은 漢語音韻史에서 나타난 韻母의 변화 현상인 “-i > -i”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正齒音과 半齒音은 권설음화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아 “-i)”와 “| (i)”가 혼용된 단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서는 “支(平)·紙(上)·寘(去)”韻에 있는 齒音字에서 《通攷》의 俗音 표기와 《翻譯老朴》의 좌측음에 “△”을 종성 표기로 쓴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sup>61)</sup> 즉 “支紙寘”韻의 齒音字에서 韻母를 “- (또는 |)”로만 발음하면 齒音을 정확히 낼 수 없고 “△” 종성을 붙여야 齒音을 제대로 낼 수 있지만, 初學者가 배우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 것이다. 《譯訓》의 正音에는 “△” 종성이 없고 俗音에 “△” 종성을 붙였는데, 이 “△” 종성은 음운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음에 대하여 正音과 俗音의 표기방식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종성은 새로 출현한 齒音 뒤의 설침모음인 “ㄱ, ㄴ”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나 “|”로 표기되는 다른 韻의 모음과 구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漢語 모음(ㄱ, ㄴ)은 한국어의 “-, |” 모음으로는 정확히 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을 종성에 붙여 구분한 것이다(졸고 2012: 48-51).

<표 13> 支·紙·寘韻의 齒音字 종성 표기

[卷第一]支韻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 [卷第七]紙韻①②③④⑤⑥⑦  
⑧⑩⑪ / [卷第十]寘韻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⑯

9. 기타 俗音 표기

《譯訓》에 나타난 俗音 표기 중 본 장에서 제시한 위의 여덟 가지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표기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4)는 喻母字가 日母字化한 것이고, (2), (3)은 次淸音이 全淸音化한 것으로 근대 시기 北方

61) “通攷費字音즈, 註云俗音중, 韻內齒音諸字, 口舌不變, 故以△爲終聲然後, 可盡其妙. 今按齒音諸字, 若從通攷加△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 (《通攷》에서 ‘費’의 字音은 ‘즈’인데 註에 俗音은 ‘중’이라 하였다. 韻內 齒音의 여러 글자들은 입과 혀가 변하지 않으므로 ‘△’으로 종성을 삼은 후에 가히 그 묘함을 다하였다. 이제 齒音의 여러 글자를 살펴보니 만약 《通攷》에 따라 ‘△’을 더하여 글자를 삼는다면 초학자가 그 음을 발음하기 어려울까 두렵다.)

漢語의 일부 글자에서 나타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sup>62)</sup> (1)은 개별 글자에서 나타난 字音의 특수한 讀音으로 北方音 변화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표 14> 기타 俗音 표기

- |               |          |          |            |
|---------------|----------|----------|------------|
| (1) [卷第八]解韻③  | 正音 :혜(?) | 俗音 :로(?) | (예) 夥      |
| (2) [卷第八]賄韻③  | 正音 :취    | 俗音 :쇄(?) | (예) 揣      |
| (3) [卷第九]寢韻②  | 正音 :침    | 俗音 :신    | (예) 瀋沈     |
| (4) [卷第十一]隊韻⑤ | 正音 ·위    | 俗音 ·취    | (예) 叡睿容銳兌悅 |

IV. 俗音 注音의 목적

본 장에서는 《譯訓》에서 이러한 俗音 표기를 붙여 놓은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음은 《譯訓》의 序文에 나타난 正俗音 관련 기록인데, (1)은 俗音을 붙이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2)는 正俗音의 같고 다를 것을 살피기 위하여 접한 대상과 노력을 기록하고 있다.

- (1) “分入字母於諸韻各字之首，用訓民正音以代反切。其俗音及兩用之音，又不可以不知，則分注本字之下，若又有難通者，則略加注釋以示其例”(《譯訓》 序)
- “字母를 여러 韻의 각 글자 첫머리에 나누어 넣고, 훈민정음으로 反切을 대신하였다. 그 俗音 및 두 가지로 사용되는 음 역시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本字의 아래에 나누어 기록하고 만약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주석을 붙여 그 예를 보였다.”
- (2) “燕都爲萬國會同之地，而其往返道途之遠，所嘗與周旋講明者，又爲不少，以至殊方異域之使，釋老卒伍之微，莫不與之相接，以盡正俗異同之變。”(《譯訓》 序)

62) “[卷第十四]屋韻③精母(10字)”에는 正音이 “·죽”, 俗音이 “·충”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全淸音이 次淸音으로 변화한 예를 보여 준다.

“燕京은 만국이 한데 모이는 땅으로 그 오가는 길이 멀어 일찍이 뒤쫓아 물어서 분명히 밝히고자 한 사람 또한 적지 않았고, 변방이나 이역에서 온 사신들과 중, 도사, 군졸 등과 같은 미천한 사람들까지 서로 접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며, 이렇게 正俗의 같고 다름을 다 살펴려 하였다.”

《通攷》 凡例에는 짧지만 正音과 俗音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인이 사용하는 음 중에서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字音(正音)을 정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을 俗音으로써 反切 아래에 쓴다고 하였다. 다음은 《通攷》 凡例와 《四聲通解》(1517)(이하 《通解》) 凡例에 나타난 正音 및 俗音과 관련된 기록이다.

- (3) “以圖韻諸書及今中國人所用, 定其字音. 又以中國時音所廣用, 而不合圖韻者, 逐字書俗音於反切之下.”(《通攷》 凡例)  
 “여러 韻圖와 韻書 및 지금 중국인이 사용하는 바로써 그 字音을 정하고, 또한 중국의 時音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자마다 俗音으로써 反切 아래에 쓴다.”
- (4) “正韻凡例云, 人居異區, 五方殊習, 而聲之所發乃有剽疾重遲之別, 故字音之呼, 萬有不同也. 欲知何者爲正聲, 五方之人, 皆能通解者, 斯爲正音也.”(《通解》 凡例)  
 “《洪武正韻》 凡例에 이르기를, 사람이 다른 곳에 살면서 五方の 습속이 다르게 되었으며, 소리를 내는 바도 빠르고 급하고 무겁고 느려지는 등의 차이가 생겨서 字音의 발음도 상당히 다르다. 어떤 것이 표준음인지 알고자 한다면 五方의 사람들이 능히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正音이다”
- (5) “字之取捨, 音之正俗專以洪武正韻爲準.”(《通解》 凡例)  
 “글자를 취하고 버림과 語音의 正俗은 전적으로 《洪武正韻》을 기준으로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 기록들을 통하여 《譯訓》에 나타난 正音과 俗音의 개념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正音이란 중국인이

사용하는 현실음 중 五方의 사람들이 통할 수 있도록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음을 정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줄고 2011: 96-97). 조선 초기에 표준적인 漢語音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된 韻書는 中國 韻書인 《洪武正韻》으로 이 책의 反切音은 《譯訓》, 《通攷》, 《通解》 등을 통하여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正音으로 정리되었다. 따라서 朝鮮의 漢學者들이 생각한 韻圖와 韻書에 부합하는 正音이란 《洪武正韻》의 反切音이자 이를 분석하여 한글로 기록한 《譯訓》, 《通攷》, 《通解》의 正音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면 俗音은 전통적인 中國 韻書와는 궤를 달리 하는 《蒙古韻略》, 《蒙古字韻》 등 蒙古 韻書에 기록된 음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며, 《洪武正韻》의 反切音 즉 正音에서 벗어나 당시 광범위하게 통용되던 현실음으로 《譯訓》과 《通攷》에 正音과는 별도로 反切의 아래에 附記된 것이다. 또한 하나의 漢字에 여러 개의 俗音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俗音은 당시의 현실음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正音 역시 표준적인 韻書에 기록된 중국인이 사용하는 현실음이라고 볼 수 있다.<sup>63)</sup> 《譯訓》의 正音과 俗音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근거로 한다면 正音과 反切의 아래에 俗音을 附記해 놓은 주요한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64)</sup>

첫째, 正音이 당시 北方音의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譯訓》의 正音과 俗音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대부분이 당시 北方漢語音의 음운변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洪武正韻》의 反切音과 이

63) 張衛東(2000: 213)에서는 당시 북방의 현실음에는 俗音이라는 한 측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正音과 俗音이라는 두 측면이 존재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의 正音은 사람들의 전통관념 상에서의 正音이고 俗音은 실제적으로는 발음상 이미 주류가 되었으나 표면적으로는 아직 正音을 대체하지 못한 음이라고 하였다.

64) 金武林(1999: 248)에서는 俗音의 유형별 예를 통하여 俗音의 네 가지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正音에 상대되는 通俗音으로서의 俗音. 둘째, 正音의 위치를 잃은 古音으로서의 俗音. 셋째, 一字多音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俗音. 넷째, 체계적 대역에서 놓친 음성적 대역으로서의 俗音.

를 해석하여 제시한 《譯訓》의 正音도 《洪武正韻》의 편찬 당시에는 표준음이자 현실음이었다. 그러나 당시 漢語音에서 시간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洪武正韻》의 反切音은 明初의 首都인 南京에서 통용되던 표준음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譯訓》보다 80년 정도 전에 南京에서 편찬되어 당시 北方의 時音과는 차이가 있는 《洪武正韻》의 反切音만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洪武正韻》의 反切音과는 다르지만 15세기 당시에 현실적 正音의 자리를 차지하여 北方에서 널리 통용되던 漢語音인 《譯訓》의 俗音도 등재한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漢語音이 표준적인 발음사전인 韻書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韻書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인데, 《譯訓》의 俗音은 당시의 현실적 正音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正音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韻書에 등재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sup>65)</sup> 이와 같은 성격의 《譯訓》 俗音은 조선 초기와 중기의 韓國 韻書에 수록되었고, 《翻譯老朴》 등 조선 초중기의 漢學書에서도 규범음의 자리인 좌측음에 등재되게 된다.

둘째, 俗音 표기를 통하여 漢語音의 발음을 보다 정밀하게 제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支·紙·寘”韻의 중성 표기가 대표적이다.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이 漢語音을 정확히 표기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와 漢語는 음운체계가 달라 훈민정음으로 漢語의 발음을 완벽하게 표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支·紙·寘”韻의 중성 표기는 편찬자들이 훈민정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漢語音을 표기하려 했던 노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洪武正韻》의 反切音을 분석하여 제시한 正音에는 이러한 표기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편찬자들이 직접 質正한 당시의 北方音을 적는 데는 이러한 표기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譯訓》의 俗音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성격 중 하나인 정밀전사표기(narrow transcription)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65) 朴炳采(1983: 173)에서 《譯訓》의 正音은 전통적인 正音이자 文語的 正音이고, 俗音은 현실적 正音이자 口語的 正音이라고 하였다.

《譯訓》의 편찬자들에게 《譯訓》의 俗音은 15세기 중반의 口語에서 이미 표준음 즉 正音의 범주에 충분히 수용할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譯訓》의 俗音은 규범적인 正音이 아닌 현실적인 正音으로 이는 正音의 개념이 확장되어 적용된 것이며, 표준적인 발음사전인 韻書에 正音과 함께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譯訓》에 나타난 俗音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譯訓》에서 俗音 표기가 注音된 부류를 전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 부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正音과 俗音의 표기에서 차이가 생긴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俗音を 注音한 목적에 대해서 이 글의 개략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譯訓》의 俗音 표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학적 가치와 자료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譯訓》에 나타난 俗音 표기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俗音を 注音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후속되는 연구에서는 이 글에서 이루어진 정리와 분석 작업의 기초 위에서 《譯訓》 俗音의 성격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譯訓》 俗音이 가진 漢語音韻史와 國語音韻史에서의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도록 할 것이다.

## <References>

1. *Beonyeokbaktongsa*. Daegu: The graduate school of KNU, 1959.
2. *Beonyeoknogeoldae*. Seoul: Aseamunhwasa, 1980.

3. *Hongmujeongunyeokhun*.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1973.
4. Hur Woong. *Gukeoemunhak*. Seoul: Saemmunhwasa, 1985.
5. Kang Shin-Hang. *Saseongtonghaeyeongu*. Seoul: Shinasa, 1973.
6. Kim MooRim. *Hongmujeongunyeokhunyeongu*. Seoul: Worin Publishing Co., 1999.
7. Lee TonJu. *Hanjunghanjaeumyeongu*. Seoul: Thaehaksa, 2003.
8. Park ByeongChae. *Hongmujeongunyeokhunuisinyeongu*.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tudies, Korea University, 1983.
9. *Saseongtonghae*. Seoul: SNU Library, 1517.
10. Shin Yong-kwon. "A Study on Chinese Reading in *Fanyilaoqida* and *Fanyilpiaotongshi*", *Eoneohak* 62, (2012).
11. Shin Yong-kwon. "A Study on the Chinese Voiced sound and Entering tone reflected in *Fanyilaoqid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4, (2009).
12. Shin Yong-kwon.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Zheng-Suyin Reflected in *Fanyilaoqida·Piaotongshi*", *Hangeul* 293, (2011).
13. Shin Yong-kwon. *A Study on the Gujinyunhuijuyao*. Doctoral dissertation, Nanjing University, 2002.
14. Wang Li. *Hanyushigao*. Beijing: Zhonghuashuju, 1980.
15. Zhang Weidong. "A Textual Research on the Variations between the Speech Sounds of Chinese's Written and Speech Forms", *Journal of International Chinese Studies* 3, (2000).

<참고문헌>

1. 《翻譯朴通事》，慶北大學校 大學院 영인본, 1959.
2. 《翻譯老乞大》，亞細亞文化社 영인본, 1980.

3. 《洪武正韻譯訓》, 高麗大學校出版部 영인본, 1973.
4. 허웅,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1985.
5. 姜信沆, 《四聲通解研究》, 新雅社, 1973.
6. 金武林, 《洪武正韻譯訓研究》, 도서출판 월인, 1999.
7. 李敦柱, 《韓中漢字音研究》, 태학사, 2003.
8. 朴炳采, 《洪武正韻譯訓의 新研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9. 《四聲通解》,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1517.
10. 신용권, <《번역노걸대·박통사》의 한어음 표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어학》 제62호, 2012.
11. 愼鏞權, <《翻譯老乞大》에 나타난 濁音과 入聲 표기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第54輯, 2009.
12. 신용권, <『번역노걸대·박통사』에 나타난 정속음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글》 293, 2011.
13. 愼鏞權, <《古今韻會舉要》研究>, 南京大學 博士論文, 2002.
14. 王力, 《漢語史稿(修訂本)》, 中華書局, 1980.
15. 張衛東, <《華音正俗變異》考>, 《國際中國學研究》 3, 2000.

### <Abstract>

After the invention of Hunminjeongeum(訓民正音), King Sejong ordered a group of scholars, including Sin Suk-ju(申叔舟), to translate the *Hongmujeongun* (洪武正韻) into Korean.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the *Hongmujeongun* was completed in 1455, this book is *Hongmujeongunyeokhun* (洪武正韻譯訓). In this book, the pronunciation devices in the *Hongmujeongun* were replaced by the Korean alphabet. And, in addition to the readings defined in the *Hongmujeongun*, i.e, the Jeongeum(正音, standard sound), the contemporary Mandarin readings

were included under the name of Sokeum(俗音, popular sound).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following problems about the Sokeum of *Hongmujeongunyeokhun*. First, I will analyze a difference between Jeongeum and Sokeum in this book and be concerned with several problems about transcription. Secondly, I will scrutinize Chinese phonetic changes reflected in the fifteenth century published book. Finally, I am looking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readings reflected in this books in connection with the motivation of publication.

Key Words : 훈민정음(Hunminjeongeum), 申叔舟(Sin Suk-ju),  
洪武正韻譯訓(Hongmujeongunyeokhun), 正音(Jeongeum),  
俗音(Sokeum), 漢語 음 변화(Chinese phonetic changes),  
漢語音 表記(Chinese readings).